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수신자 전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서명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8년 0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민간교류 지원 등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약속한 바 있으나 북미관계 경색과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3. 따라서 남북교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우리 전세버스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와 협력하여 관계부처에 우리 업계 총의를 모아 탄원하고자 하오니 각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고견 개진과 연명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해당 연명부는 조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명하시거나 또는 첨부 연명부를 작성하여 10월 30일(수)까지 서울조합으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연명부 1부.

※ 첨부자료는 조합홈페이지(www.tourbus.or.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부 장 (기획관리)

라영석

실 장 (기획관리)

박호동

전무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 행 서전버조 19 -272호 (2019.10.24) 접수 ()

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신천동, 교통회관 11층) /

전화 02-422-0019 전송 02-418-0071 / <http://www.tourbus.or.kr> / 공개

"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 서명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은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남북관계가 팍 막혀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체되고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1.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 유엔과 미국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이름	단체(선택)	거주지(시,군까지)	나도 한마디

